광주에 오는 기업 최고 100억 지원

■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내년 시행

市, 파격적 인센티브 내걸고 유치 총력

광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고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내걸려, 수도권 등 역외기업의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는 29일 수도권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투자촉진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수도권 기업은 기업당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비(非)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각 2배씩 늘어난다.

또 투자액 20억 원 이상·상시 고용 20명 이상이던 기존의 보조금 지원 규정 외에 업체 본사나 연구소 이전·신설의 경우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에 상시 고용 10명 이상이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벤처 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도 투자금액 15억 이상에 상시 고용인원 15명 이상이면 보조금 받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입지 보조금은 공장용지 매입액의 20%까지 지원하고, 시설 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공장 설치·이전비용에 대해 초과분의 5%까지 준다.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은 20명 이상 신규채용할 경우에 초과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개정안은 또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을 위해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민간인이나 광주시 공무원이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이나 50억 원 이상의 국내 자본을 유치한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유치 성과금을 지급받는다. 시 공무원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이나 1천억 원 이상의 국내 자본을 유치한 경우도 유치금액의 0.005%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받고 특별 승진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국내투자 가능성이 있는 해외기업의 동향파악과 정보교류·수집을 위해 해외 주요도시에 교포 기업인이나 교수·연구원, 외국 기업인 등 20명 이내의 명예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자체 간의 기업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타지역보다 나은 유인책이 필요해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천 환경 정화 광주·전남재향군인회(회장 성해석) 회원 50여명이 29일 오전 광주공원 앞 광주천에서 오물을 수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동탄 등 수도권에서 60개 기업 유치 추진"

광주시, 지역별 현지 에이전트 위촉 적극 활동

광주시가 수도권 제2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역 등 수도권 지역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탄 일대는 삼성전자 계열사와 외국인 투자기업 등 240여개 업체가 소재한 기업밀집 지역이지만, 다음달 말께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구로 최종확정되면 기업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60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이달초 박광태 시장 명의의 서한과 투자환경 설명자료를 발송하는 등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는 수도권 지역별로 현지 에이전트를 위촉해 대상기업 발굴과 정보 수집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시는 지역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상기업을 방문해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삼성광주전자 등 지역 대기업의 자회사나 납품 기업, 출향인 기업 등에 대한 유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호남대 문화체육관 내일 개관

호남대학교는 체육관과 공연시설 등을 갖춘 문화체육관을 완공, 오는 31일 개관한다.

호남대 문화체육관은 1만3천463㎡부지에 5천872㎡크기의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다. 모두 200억원이 투입됐고, 900개의 관중석과 대형 LCD 전광판도 갖췄다. 〈사진〉

방음시설을 갖춰 콘서트 등 문화행사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호남대는 천연·인조잔디 축구장에 이어 최신 시설의 문화체육관도 갖추게 된 캠퍼스 일원을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스포츠파크'로 조성할 방침이다.

대학 측은 개관일에 아이비, FT아일랜드, 배슬기, 박완규, 김혜연 등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콘서트를 열어 체육관 시설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호남 장애인 400명 화합 한마당 교류 대회

'제8회 영·호남 장애인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가 30일 광주시 남구 구동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주시 남구장애인협회(대표 박정민)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영·호남 장애인 400여명이 참가해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등을 하며 친목을 다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산 수호천사 '119구급대' 활동

광주북부소방서(서장 나강문)가 무등산에 전진 배치한 '119구급대'가 인기다. 단풍철 산악 안전 주의보 속에 실족·추락·탈진 등을 당한 등산객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어서다.

광주북부소방서 119대원들은 지난 27일부터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앞에서 '등산 안전목 지키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등산객들의 혈압·혈당 등을 측정해 이상이 발견되면 산행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산행 중 부상자에 대한 치료와 후송에 대비해 구급장비를 갖추고 상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10~11월에 산악안전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므로, 등산객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산행 중 안전사고가 사고발생하면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등산 안전목 지키기 활동을 계속한다.

/김주정기자 jjnews@

■ 5·18 부상자 '자살 피해' 토론회

"정신적 고통 못이겨 가정 파괴 장기 사회복지 정책 마련 시급"

5·18 부상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자살을 하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대책이 요구된다.

생명인권운동본부 조용범(임상 심리학)박사는 29일 오후 5·18 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가족의 자살피해 현황에 대한 토론회'에서 "5·18 당시 부상당했다가 자살한 이남종(가명)씨와 가족·동료를 대상으로 한 '심리학적 부검'을 실시한 결과, 이씨는 국가폭력 때문에 스트레스 장애·알코올 중독·외면 등 17가지 원인이 겹쳐 가정을 파괴하고 자살에까지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장기적인 사회복지 정책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의 심리학적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이씨는 80년 5월27일 체포돼 31사단으로 끌려가 온갖 고문을 받고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였지만, 병원에 다니지 못했다. 결국 이씨는 술로 고통을 견디며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는 딸과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보상금으로 받은 6천만 원으로 두 번째 가정을 꾸렸지만, 술을 끊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간암이 발병했고 수술을 이틀 남겨둔 2004년 11월24일 극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극은 딸에게도 이어졌다. 딸은 고교 재학 중 가출, 광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지금도 전국을 떠돌며 술집을 전전하고 있다. 딸은 아버지가 5·18 당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감정이 없다고 전했다.

조 박사는 이씨의 자살은 신체적 고문 및 학대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알코올 중독·간질환·사회로부터의 외면 등 17가지나 됐다며 그 출발점에는 결국 '국가폭력'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참석자들은 ▲사회환경적 차원의 예방활동 ▲5·18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복지 정책 ▲5·18 피해자 가족과 직계자손에 대한 장기적인 피해대책 연구와 사회복지 정책 ▲진압군 및 가해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정확한 진상조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5·18 부상자들의 자살률은 10.4%로,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 4.4%의 2배를 넘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담

- 당직변호사(30일) 김나복 232-5959
- 법무사회 법률상담(22일) 김동안 239-1809
-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 광주 YWCA 527-0011
-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가동수사대 (광주)	229-0118
(전남)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